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9 August 2022 8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9 AUGUST 2022

발행일 : 2022년 8월 31일

인쇄일 : 2022년 8월 31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계용택, 곽성웅, 김자영,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백영준,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146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1081461)

목 차

▶	스웨덴의 『2020 북극전략』 주요 내용 분석	-----	1
	곽성웅		
▶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및 전망	-----	8
	배규성		
▶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망	-----	15
	이주연		
▶	일본의 북극연구 및 연구성과 소개	-----	21
	백영준		
▶	『특별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모한 도전: 몽골을 거쳐 핀란드 접경지역 러시아 카렐리야 공화국까지...	-----	30

김정훈

스웨덴의 『2020 북극전략』 주요 내용 분석*

곽성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

1. 스웨덴과 북극, 그리고 북극전략

1996년 출범한 북극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이자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정식 회원국인 스웨덴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북극국가를 표방하고 있다.¹⁾ 16세기부터 본격적인 북극경략을 시작한 스웨덴의 입장에서 북극과 그 주변인 북극지역은 스웨덴의 국가 정책에 있어 오랜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에 스웨덴은 2011년부터 10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북극 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2011년은 스웨덴이 2년 주기로 교체되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한 원년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스웨덴은 2차례의 북극전략을 발표했는데, 본 글은 두 번째로 발표된 가장 최신의 북극정책 보고서인 2020년 『스웨덴의 북극전략』(Sweden'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이하 2020 북극전략)의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2. 『2020 북극전략』의 주요 내용

스웨덴의 북극정책을 다룬 2011년과 2020년의 북극전략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핵심 요소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 북극전략』에서는 북극정책의 우선순위가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인간 중시’(The Human Dimension)이었지만, 『2020 북극전략』은 ‘기후’(Climate)와 ‘인간’(People), 평화(Peace)를 핵심요소로 지목하고 있다.²⁾ 그리고 『2020 북극전략』은 핵심 요소를 세분화한 6가지의 핵심 목표 분야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과, ‘안보와 안정’(Security and Stability),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극지 연구와 환경감시’(Polar Research and Environmental

* 본 기고문은 2022년 6월 발간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6권 2호에 실린 저의 논문 “스웨덴의 북극정책과 대(對)러시아 경계심의 발현: 스웨덴의 『2020 북극 전략』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Stockholm: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0), p. 1.

2)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11), op. cit., p. 23;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 1.

Monitoring),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경제적 이익’(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Interests), ‘적정한 거주 여건의 확보’(Securing Good Living Conditions)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2011년에 비해 2020년 북극전략의 목표는 2배 증가했는데, 이는 스웨덴의 북극정책이 과거보다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인 목표 지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스웨덴의 『2020 북극전략』에서 나타나는 북극전략의 핵심 목표 분야 6가지를 3대 핵심 요소와 연계·범주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기후(Climate)

①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2020 북극전략』에 따르면, 스웨덴은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의 가입국으로서 이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 온난화는 극지방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기에 세계 각국은 북극과 남극의 기후변화 역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스웨덴 정부는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준수와 ‘비독성순환경제’(non-toxic circular economy)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비독성순환경제는 스웨덴 정부가 주목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한 조류로서, 인류에게 해롭지 않은 물질로 현재 대량 사용되는 독성함유 물질들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출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침전과 다량의 폐기물들은 인류 보건과 생물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스웨덴 정부는 1966년부터 산업계와 공동으로 환경연구소(Swedish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⁴⁾를 설립하여 이러한 순환경제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② 극지연구와 환경감시(Polar Research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스웨덴은 극지연구와 환경모니터링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왔다. 북극권에 포함되는 스웨덴 북부지방의 라플란드 북서부 키루나(Kiruna)에 있는 아비스코 과학연구기지(Abisko Scientific Research Station)는 극지연구와 환경모니터링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스웨덴 과학계는 극지 연구의 역사에서 수많은 인물(린네와 마르틴, 노르덴스키월드, 아레니우스 등)들을 배출해왔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쇄빙선 중 하나인 스웨덴의 오덴호는 1991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 이상 북극점에 도달하며 극지탐사를 위한 기후 중립 연구용 선박으로서 세계의 극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스웨덴은 오랜 북극연구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동참하고 있다.⁵⁾ 그 대표적 사례로는 ‘북극파이브’(Arctic Five)와 ‘북극대학’(University of the Arctic), ‘노스2노스 교환프로그램’(North2north exchange programme) 등이 있다.

3) *ibid.*, p. 29

4) “ABOUT IVL”, <https://www.ivl.se/english/ivl/about-ivl.html> (검색일: 2021.09.30.).

5)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p. 38.

(2) 인간(People)

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경제적 이익(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Interests)

스웨덴의 『2020 북극전략』에서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보장하는 핵심 분야 3가지를 제시한다.⁶⁾ 바로 천연가스의 활용, 교통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관광이다. 현재 북극의 자원 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2008년 환북극 자원평가』(the 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보고서에 따르면, 환북극(Circum-Arctic) 지역에는 미발견된 석유 440~1,570억 배럴과 천연가스 770~2,990조 세제곱피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⁷⁾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북극 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2020 북극전략』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북극의 천연자원 개발 과정 중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채굴 활성화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적 과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⁸⁾ 그중에는 ‘스웨덴수출신용보증위원회’(The Swedish Export Credits Guarantee Board)가 관리하는 정책자금 지원 수단을 매개로 북극 개발에 참여하는 스웨덴 민간기업의 대기오염물 배출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북극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스웨덴의 정책구상은 환경부담이 적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노력한다는 UN의 ‘2030 아젠다’⁹⁾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스웨덴이 무역 진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¹⁰⁾

② 적정한 거주여건의 확보(Securing Good Living Conditions)

스웨덴의 『2020 북극전략』은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토착소수민족 주민들의 정체성과 문화, 전통 생활방식 보존과 발전에 노력한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¹¹⁾ 현재 전 세계 인구수의 1%를 차지하는 북극지역의 주민들은 그 수가 4백만에 이르며, 그중 10%인 약 40만 명이 토착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극 주민들의 상당수가 노년층이며 청소년, 특히 젊은 여성들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은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미족 자치의회와 협력하여 사미족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를 통해 청장년층의 회귀를 촉진하여 북극지역의 인구학적 위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6) *ibid.*, p. 45.

7) Donald L. Gautier and Thomas E. Moore, *Introduction to the 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CARA) Professional Paper*, (Reston, Virginia: U.S. Geological Survey, 2017), p. 4.

8)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 45.

9) 2015년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의제로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과제를 말한다. 2030 아젠다로는 빈곤 퇴치와 기아 대책, 교육의 질, 성평등 등이 있다.

10)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 44.

11) *ibid.*, pp. 53-55.

(3) 평화(Peace)

① 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북극에서 스웨덴이 지향하는 국제협력은 북극국가들 간 적절한 협력 속에서 북극지역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이다.¹²⁾ 이를 위해 스웨덴은 국제법적 질서에 기반한 북극지역의 역내 관계 설정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북극이사회의 역할 강화도 강조하며, 북극지역의 여러 다자기구(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와 노르딕 지역협력기구인 북유럽각료이사회, 유럽연합 등)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에도 주목한다.

먼저 스웨덴의 『2020 북극지역 전략』 보고서는 북극에 국제법이 투영되지 못할 진공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³⁾ 현재 북극해의 자국 영역에 대한 연안국들의 대륙붕 확장 논리는 북극해 영토분쟁의 핵심원인이다. 이에 스웨덴은 비록 비북극연안국이지만 해양과 관련된 국제법적 기준에서 북극해 경계획정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⁴⁾ 이는 비북극연안국과 비북극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며 북극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스웨덴에게 있어 북극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관리할 핵심기구는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지난 25년간 북극 관련 국제협력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과들을 달성해왔다. 『2020 북극전략』은 스웨덴이 앞으로도 북극이사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⁵⁾

스웨덴은 북극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향하면서도,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분쟁들을 해결하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역내 지역협력기구의 활용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는 북극이사회보다 더 이전인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바렌츠해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과 긴장 완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리고 북유럽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는 스웨덴을 포함한 노르딕 5개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이 공동협력하고 있는 다자기구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력에 상당한 방점을 찍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북극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여에도 긍정적이다.¹⁷⁾ 북극문제에 있어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적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스웨덴이 지지할만한 정책적 지향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북극정책 개발과 북극이사회 내에

12) *ibid.*, p. 11.

13) *ibid.*, p. 12.

14) 사실 스웨덴은 북극연안국도 아니고 영토분쟁의 당사자도 아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은 가치중립적이고 자유롭다. *ibid.*: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이나, 아이슬란드는 북극해 주변 일부 지역에서의 대륙붕 경계 확장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15)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 16.

16) *ibid.*, pp. 16-17.

17) *ibid.*, p. 18.

서의 역할 강화에 매우 긍정적이며 다각적인 협력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¹⁸⁾

② 안보와 안정(Security and Stability)

북극지역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스웨덴은 군사적 대응 능력의 확보와 선제적인 안보 전략을 입안할 수 있는 역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¹⁹⁾ 특히 스웨덴은 북극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응 능력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스웨덴 국방부는 작년에 공개한 '2021-2025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제출법안의 주요 내용'(Main elements of the Government bill Totalförsvaret(Total Defence) 2021-2025)에서 스웨덴의 지리적 인근 범위에 '북극지역'(the Arctic area)을 포함시키며, 시간이 갈수록 스웨덴의 주변 지역과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²⁰⁾

사실 북극은 그동안 군사적 긴장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변화하는 북극의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스웨덴이 마련한 해법은 2가지이다.²¹⁾ 하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극국가들 간 잘 운용되어온 국제적 협력 관계의 활용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발생가능한 다양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능력의 강화이다. 먼저 스웨덴은 북극이사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약칭: NATO, 이하 나토), 유럽연합 등과 같은 다자기구를 활용한 북극안보협력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또 다른 해법은 선제적 대응 능력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스웨덴 정부는 북극이 스웨덴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력을 과소평가해 왔다.²²⁾ 그러나 이제 북극지역에서 일부 국가들의 무력 증강과 군사활동 강화가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다.²³⁾ 그래서 스웨덴은 근린 지역인 누트카로텐과 바렌츠해, 노르웨이해, 북대서양 북부지역에서의 자체적인 군사작전 능력 확대를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주변 우호 국가와의 안보협력관계 구축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이다. 여기에 스웨덴은 범유럽과 범대서양 협력을 강화하여 북극지역의 거대 안보변화 혹은 안보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²⁴⁾ 유럽연합은 스웨덴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스웨덴과의 안보협력에 공헌해왔고, 범대서양 안보협력은 북미와 유럽 안보의 근간인 나토를 중심으로 긴밀한 다자안보협조체제가 구축된 상태다.

3. 결론과 한국에의 시사점

스웨덴은 오랜 역사적 관계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극에 대한 국가 정책적 비전과 관심을 축적해왔다. 2020년 발표된 『2020 북극전략』은 현재 스웨덴이 북극지역에 대해 수립하고

18) *ibid.*

19) *ibid.*, p. 21.

20) Ministry of Defence, *Main elements of the Government bill Totalförsvaret(Total Defence) 2021-2025*, (Stockholm: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0), p. 15.

21)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p. 22-23.

22) *ibid.*, p. 24.

23) Ministry of Defence, *op. cit.*, p. 22(180).

24)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20), *op. cit.*, pp. 24-25.

있는 여러 정책적 지향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웨덴은 이 보고서에서 북극 관련 6가지 핵심 목표 분야(국제협력과, 안보와 안정, 기후와 환경, 극지 연구와 환경감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경제적 이익, 적정한 거주여건의 확보)를 선정하여 북극지역에서의 국익과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웨덴의 북극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본 저자는 2가지 측면을 주목한다. 첫째, 비북극연안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촉구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극 자원 개발의 참여가능성 타진과 북극항로의 이용가능성 등에 집중한 나머지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연안국에만 정책적 관심을 몰두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의 북극 정세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 스웨덴과 같은 비북극연안국도 엄연한 북극이사회의 정식회원국이고, 순번제 의장국도 역임하며 북극지역 거버넌스 변화에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일변도의 한국 북극정책과 관련 연구가 현재의 북극 정세를 적절히 감안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의 책임으로 인해 러시아가 북극이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향후 북극정책과 북극외교전략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비북극연안국들의 북극정책에 관한 기반 연구는 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 북극 정세나 거버넌스 변화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북극과 관련하여 한국과 스웨덴 간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스웨덴이 쌓아온 북극과 그 주변 지역에 관한 오랜 경험과 기술, 지식, 정보 등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른 한국의 북극연구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1959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치·경제적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북극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이렇다 할 유의미한 정책 공조가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으로 북극전략과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북극과 관련된 다방면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통해 2002년 두 번째 극지연구소이자 최초의 북극 해양과학기지인 다산기지의 건설과 2013년 북극이사회 회원 만장일치에 의한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 등의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국의 북극정책은 이제 기존의 관성을 내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북극 정세에 걸맞은 목표와 지향점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북극 관련 학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자세로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그런 발걸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Gautier Donald L. & Moore, Thomas E. *Introduction to the 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CARA) Professional Paper*, Reston, Virginia: U.S. Geological Survey, 2017.
- Ministry of Defence, *Main elements of the Government bill Totalförsvaret(Total Defence) 2021-2025*, Stockholm: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0.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Stockholm: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1.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s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Stockholm: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0.
- “ABOUT IVL,” <https://www.ivl.se/english/ivl/about-ivl.html> (검색일: 2021.09.30).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및 전망

배규성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1. 우크라이나의 역사

<그림 1. 우크라이나의 기원, 고대국가 키에프 루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명령했고, 이로써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략이나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언론 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일찍이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푸틴은 언론 연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원래 없었다. 볼셰비키 혁명때 레닌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독립이라는 옷을 입혀줬을 뿐이지, 사실상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국가이다..... 1989년 소련이 우크라이나가 소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잡겠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반러시아주의, 네오나치즘이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번도 국가의 정통성, 국가로서 가치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의 역사는 **키예프 루시**(9-12세기)에서 시작된다. 이 키예프 루시에서 세 개의 국가가 탄생한다. 우크라이나와 루시(루스) 또는 로스라는 명칭을 이어받은 벨라루시와 러시아(러시아)이다.

키예프 루시는 13세기 몽고-타타르의 침략(1223년 갈까강 전투)과 지배 이후 **변방지역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루스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이동한다.**

14세기 후반부터 변방지역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지역(국가가 아님)은 리투아니아 공국 -> 폴란드 왕국 ->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지배를 받는다. 러시아(제국)가 이 변방지역의 동쪽만 탈환하게 되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에서 차이코프스키 오페라에도 등장하는 ‘마제파(코사크 지도자)’는 중요하다. 이반 스테파노비치 마제파(1644~1709)는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아 지방의 카자크(영어로는 코사크) 지도자로 1704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과 러시아로부터 코사크 헤트만국(Hetmanate)을 동서로 통일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우안 지역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의 적인 스웨덴과 동맹을 맺고 대북방전쟁에 참전해 폴타바 전투에서 스웨덴 왕 칼 12세와 함께 러시아군과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그는 칼 12세와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하여 거기서 사망하였다. 이후 그는 러시아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에서 배반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독립된 카자크 국가를 세우려했던 독립지도자로 영웅시되고 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 10호리우냐 지폐의 도안이 되기도 했다.

<그림 2. 14c-20c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지배하의 우크라이나>



출 처 :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Ukraine#/media/File:Rzeczpospolita2nar.png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Little Russia'로 불렸다. '리틀 러시아'라는 용어의 기원은 중세 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지리적 영역의 표시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로 변방(크라이)이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의 첫 등장은 12세기 연대기에서였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몇몇 우크라이나 작가들에 의해 다시 도입될 때까지 산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 용어 '우크라이나'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20세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였다.

1917-8년 혁명기에 레닌은 서쪽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우크라이나를 지배한 폴란드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분할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서쪽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으로부터 서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과 동쪽 러시아로부터 동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내전을 거친 후,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Українська ССР)이 된 동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은 1922년 소련으로 편입되고, 서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은 폴란드의 지배로 다시 들어갔다.

<그림 3. 혁명기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과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탄생>



출 처 : https://en.wikipedia.org/wiki/Modern_history_of_Ukraine#/media/File:Ukraine-growth.png

2차대전 이후 동-서로 분리된 우크라이나가 다시 합쳐졌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Українська ССР)은 현재의 ‘우크라이나’로 독립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러시아에서 “특별군사작전”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푸틴은 18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독재자, 또는 권위주의 지도자이다.

둘째, 민주국가와 달리 권위주의 지도자는 자신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역사나 전쟁에서 찾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의 회복’을 꿈꾸었다. 제국의 회복은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병합으로 시작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으로,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변방이었다.

넷째,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젤린스키는 헌법을 개정하여 “돌이킬 수 없는 대서양 노선”, 즉 친 유럽(EU), NATO 가입을 추진했다. NATO의 동쪽으로는 확장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당연히 안보적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출신인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선물로 우크라이나에 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자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봄'이라는 봉기와 전쟁을 통해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그 이후 계속된 서방의 제재는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계속 샀다.

여섯째, 소련이 붕괴되고, 구소련 공화국들에 Russian Diaspora가 2,500만명이나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구 소비에트 영역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의 근거, 외교정책의 수단이 되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도 이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다.

일곱째, 러시아는 미국이 중심이 된 단극적 세계질서를 거부하고, 세계의 중심은 여러 개라는 다극질서를 주장해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것의 표현이다.

여덟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정치질서의 현실주의 ‘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강대국이다.”, “우리는 에너지 초강대국이다.”, “우리는 핵 최강국이다.”라는 힘의 논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홉째, 러시아는 국제적 안전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타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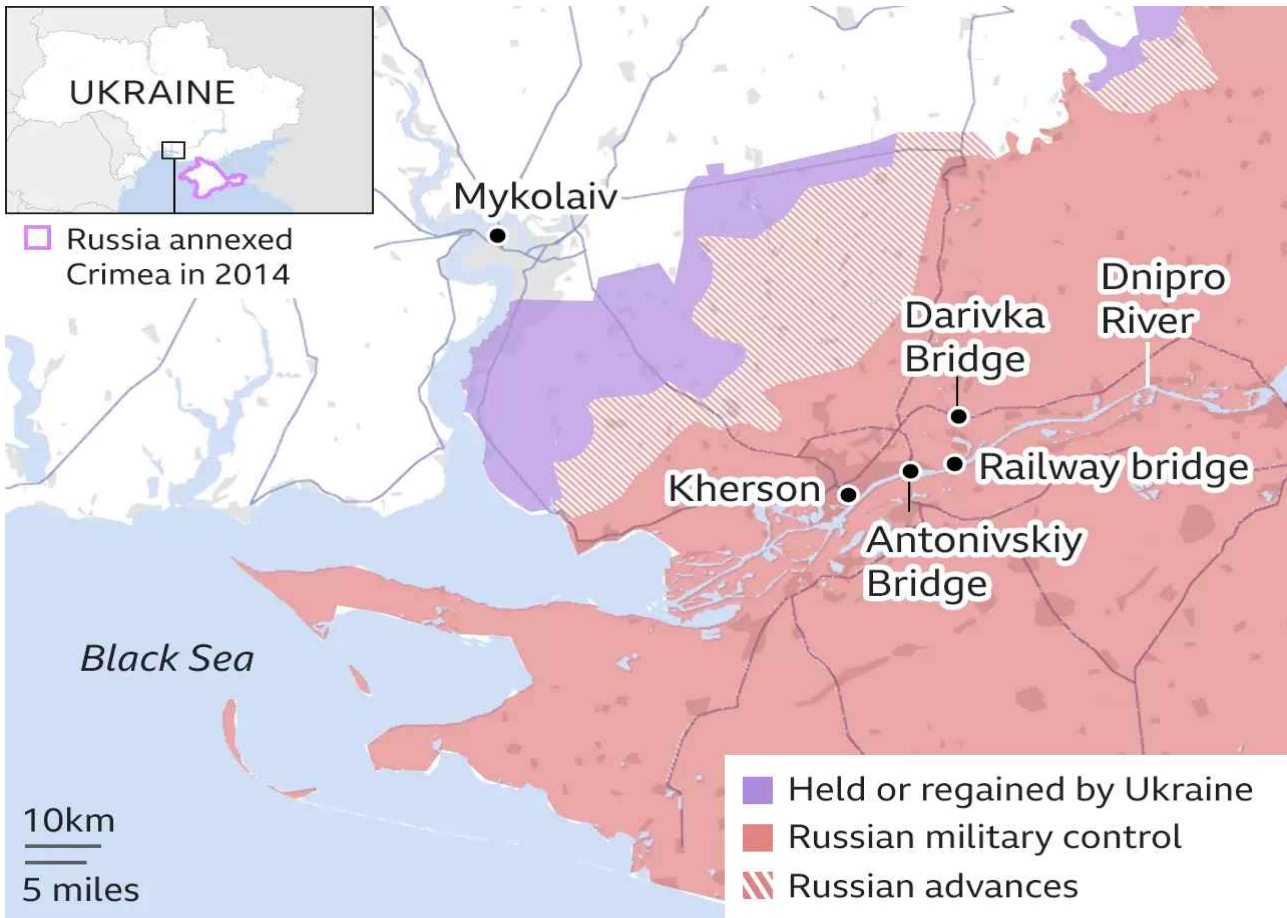
3.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하게 유엔헌장 제2조 3항의 원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고 있다.

생각보다 부진한 러시아군의 군사작전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 같다. 미국의 전략 변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전쟁을 장기화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재를 계속 강화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는 러시아를 세계적 강대국(super power)이 아닌 지역적 강대국(power)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푸틴이 전쟁에서 진다고 판단하면 핵무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적당한 수준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러시아 또한 ‘장기전’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 우선은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대해 계속 경고하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석유, 가스)를 무기화하여 서방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흑해를 통한 곡물수출을 통제하고 금지함으로써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기아를 발생시켜 난민을 양산하는 신형 하이브리드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푸틴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세계를 불황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여론을 변화시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이다.

<그림 4.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 2022년 8월 22일>



B B C

Sourc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1:00 GMT, 22 August)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어쩌면 더 심할 정도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의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2014년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다음 해인 2015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반 토막이 났었다. 현재 스위프트 제재로 인한 대러시아 신용장 거래도 사실상 막혀 수출입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완성차·부품업체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러시아와 계약한 66억 달러 규모의 거래도 스위프트 제재와 루블화 상환 조치로 8조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대략적으로 러시아에서 받을 연12조원에 달하는 대금이 걱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G2대결을 굳혔다. 2022년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재정립하며, 중국을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자', 러시아를 '유럽·대서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림 5. 중국이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Does peace have any chance with more US military aid to Ukraine? (Apr 20,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촘스키가 말한 것처럼 “세계가 처한 실제 상황에 주목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다. 내일 허리케인이 온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지라도 '허리케인이 좋지 않아' 또는 '허리케인을 인정하지 않아'라는 말로는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망

이주연
(한양대학교)

1.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7만 5,000명 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방의 언론, 정치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크림병합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러제재의 지속과,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정규군이 25만 명과 예비군 90만 명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2021년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미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2021년 12월 7일과 30일 원격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화상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이든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고, 푸틴은 서방의 지속적인 제재와 나토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1년 2월 21일 국가안보회의에서 푸틴은 민스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돈바스 지역의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2월 19일부터 20일 사이 107건 이상의 포격 사건이 보고되었고, 59,30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집결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니콜라이 파트루세프는 미국이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있고, 미국의 숨겨진 목표는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맞서 러시아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지지하기도 했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독립을 지지한 이후 러시아는 독립에 멈추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군사작전'을 2022년 2월 24일 개시했다. 작전 선포 이후 러시아는 키이우를 포함하여 전방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서방의 적극적

인 지원과 대응으로 인해 사실상 1단계 작전은 실패했다. 이후 2단계로 키이우와, 하르키우에서 철수한 러시아 병력은 돈바스 지역에 완전 장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의 주요 도시와 시설들을 점령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번째 원인으로 러시아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가치 중시 외교와 동맹 강화 대외정책 노선으로 인해 소위 수정주의 세력에 가까운 러시아는 미국과 마찰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2014년 크림병합 이후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과 다르게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여 러중 연대가 구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 힘의 균형을 흔들려는 시도가 가능해졌다. 즉,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의 가치 중시 대외정책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흔드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친서방화이다. 냉전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가 소련 붕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동쪽으로 팽창하면서 러시아에 극도의 안보불안 위협을 발생시켰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엘리트들은 나토 지속적인 팽창을 비판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2008년 조지아 전쟁과 2014년 크림병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문제는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현장'에 합의하고, 2021년 6월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서 보다 나토 위협이 커지게 됐다.

셋째,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세와 불안정성 문제이다. 2014년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했음. 2015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이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통해 맺어진 2차 민스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소규모의 군사 충돌이 지속되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강화됨에 따라 돈바스 지역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드니프로 강과 흑해를 연결하는 북크림 운하에서 크림반도로 공급되던 물이 차단되어 85%의 물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음. 이에 러시아 정부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내 정치적 불안 문제이다. 러시아는 세계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오히려 방역 실패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높아졌음. 이와 같은 미흡한 통제능력은 러시아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했다. 레바다 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5월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한 푸틴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확산 시기인 2020년 4월에는 59%까지 하락했다. 또한, 나발니 독극물 사건으로 러시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3.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가와 승리·패배의 기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 혹은 패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상반되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헤르손 주, 자포리자 주 일부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점령지역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또한, 서방의 고강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 환율이 안정화되고, 경상수지가 1,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열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유가 상황으로 대러제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 에너지로 벌어들이는 비용보다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전쟁 요인 4가지에서 나오는 승리와 패배 기준점을 제시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망해 볼 것이다.

세계질서의 재편을 위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러시아의 승리 지점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여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퇴출하고, 러시아 영향력을 강화하는 상황일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패배 지점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전면 철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소패권을 잃는 상황일 것이다.

두 상황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는데 많은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가 장기전 끝에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전후 복구 문제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문제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포기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러시아의 무능력함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러시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받았던 중앙아,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멀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러시아 정부 무능력으로 인해 푸틴 및 러시아 엘리트 퇴진의 요구가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상황은 모두 극단적인 상황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악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러시아가 패배가 확정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이를 타개하는 출구전략으로 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토 문제는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비교적 승리와 패배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지 않을 것을 미국에 보장받는 상황(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등)은 승리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쟁의 장기화 끝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패배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더라도 향후 이를 무시하고,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험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러시아에 편입하거나, 군대를 주둔하여 나토 가입 위협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나토 미가입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분쟁화하여 나토 가입을 저지할 수 것이다.

돈바스 지역 불안정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가정할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 돈바스 지역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바스 지역을 점령 혹은 병합하는 형태일 것이다. 반면, 불안정성을 높이는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 상황일 것임.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전면 철수 상황과 같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용인할 수 없다.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동남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선적인 침공요인이라면, 전쟁의 우크라이나 서쪽까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을 안정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국내 정권 안정의 기준이 다르지만, 푸틴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83%로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여론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31일에 발표된 레바다 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은 2021년 11월 42%에서 2022년 5월 75%까지 상승했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한의 필요성에 6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전쟁에 따른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에 대해 57%는 미국과 NATO에, 17%는 우크라이나, 7%는 러시아에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4%는 러시아 군사 작전에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68%는 '특수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국민이 지지하고 있고, 이를 결정한 푸틴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은 정권 안정 측면에서 승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응답의 원인은 언론 통제, 러시아 정치문화 특징, 강대국 노스텔지어 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답의 주요 원인은 이미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전쟁이 승리로 귀결되지 않을 경우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승리·패배의 기준 종합과 시사점

앞선 시사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의 타협점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계획한 것과 같이 전방위 포위전략을 통한 전쟁을 조기에 종료시켰다면, 미국의 일극체제를 흔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단계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일극체제를 흔드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워졌다.

반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지역을 통해 나토 가입을 저지, 돈바스 지역 안정화 그리고 국내 정권 안정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바탕을 그렸다.

요약하자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은 미국의 일극체제 견제라는 관점에서 중간 수준의 결과이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망해보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하는 수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본 연구와 같이 러시아가 전쟁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행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가령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 선언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긴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용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해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 러시아가 유리한 종전을 요구해도, 미국은 수정주의 세력의 승리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궁지로 몰 경우 핵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이 장기화 하여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육상 회랑을 완성하는 상황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에서 1진1퇴하는 공방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과 같은 공방전은 양국의 사상자를 많이 만들고 있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¹⁾ 따라서 전쟁의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한반도 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같이 소규모의 교전은 있지만, 사실상 휴전 상황으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1) 이와 관련하여 레바다 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들 중 47%는 인명손실, 파괴, 고통, 포로 문제 등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러시아 군인 사망자는 2~3만 명,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2만 7,000명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은 2만 3,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 국민이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강도의 전쟁 상황이 지속하는 것은 국내 반발을 발생시킬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성진, “푸틴 집권 4기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중소연구』 45권 4호, (아태지역연구센터 /중국문제연구소 2021/2022)
- 홍완석, “‘신 냉전 2.0’으로의 질주?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러 관계”, 『슬라브학보』 제 36권 1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1)
- Robert Person, Michael McFaul, “What Putin Fears Most”, *Journal of Democracy*, Vol.33, No.2, 2022
- SMITH, N. R., & DAWSON, G. Mearsheimer, realism, and the Ukraine War.
- “바이든은 왜 ‘러 침공설’ 강조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29172?sid=001> (검색일 : 2022.02.18.)
-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67843> (검색일 : 2022.07.25.)
- “Biden, Zelensky meet at White House amid Ukraine-Russia conflict”, <https://www.nbcnews.com/politics/white-house/biden-zelensky-meet-white-house-amid-ukraine-russia-conflict-n1278232> (검색일 : 2022.08.16.)
- “Biden assures Zelenskiy that NATO membership in Ukraine's hands, Kyiv say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ian-president-zelenskiy-holding-talks-with-biden-adviser-says-2021-12-09/> (검색일 : 2022.08.15.)
- “Security Council meeting”, <http://en.kremlin.ru/catalog/persons/148/events/67825>, (검색일 : 2022.08.17.)
- “Russia Calling! Investment Forum”,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67241> (검색일 : 2022.07.28.)
- “Press Statement and Answers to Journalists’ Questions Following a Meeting of the Russia-NATO Council”,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903> (검색일 : 2022.08.11.)

일본의 북극연구 및 연구성과 소개

백영준

(러시아 시베리아연방대학교)

I 서론

일본은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국가로 선출되었고, 북극담당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극지연구소와 문교부에서 북극연구 예산을 편성해 북극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극지연구소는 이공대 분야의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고, 문교부는 북극 융합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문교부에서 지원하는 북극융합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11년부터 북극지역 관련 프로젝트에 특별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 및 틀 밖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북극지역에서 진행되는 연구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과 국제기구 등의 기관장을 일본인으로 추천함으로써 자신들의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북극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NE 북극기회변동 프로젝트(2011-2015) * 기후변화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ctic Challenge For Sustainability - ArCS (2015-2019) · ArCS II (2020-2025) * ArCS 프로젝트는 북극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제휴 및 협력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M3 3rd Arctic Science Ministerial (2021) * 아시아 최초로 도쿄에서 개최하여 북극에서의 연구 관측과 주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및 추진, 관계국 간이나 북극권 국가 거주민 단체와의 과학 협력을 한층 더 촉진

1) 일본 문부과학성 북극관련 프로젝트 설명 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kaihatu/hokkyoku/index.htm (검색일: 2022년 7월 8일).

2015-2019년까지 기간동안 ArCS는 일본극지연구소,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북해도대학 3개 기관이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급변하는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해명과 환경변화 등이 사회에 주는 영향을 밝히고 내외의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북극의 이용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밀도 높은 미래 예측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여진 정보는 북극이사회나 국제기구 또는 원주민 커뮤니티와 같은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고 그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2022년 현재는 상기의 연구의 후속연구로 ArCS II(2020-2025)가 진행되고 있다.²⁾

✓ ArCS 종합적 연구성과

북극지역 연구 추진 프로젝트(ArCS)는 국제 공동 연구의 추진, 북극지역에서의 연구·관측 거점의 정비, 젊은 연구자 및 전문가의 북극 관련 연구 기관 혹은 회의에의 파견 등의 대처를 실시했다. 이 활동은 2015년에 결정된 '일본의 북극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골자인 '일본이 북극문제 해결에 과학으로 공헌하고', '북극지역에서 질서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사회에 본 프로젝트의 과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발신정책(데이터베이스)을 준비하고 실시했다.

✓ 과학적 성과

본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국제공동연구는 각각의 과제설정에 기초하여 북극의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견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는 자연과학계 주제 (1~6번째 과제), 인문 과학·사회 과학을 다루는 주제(7번째 과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주제 1개 (8번째 과제)가, 주로 북극권국의 연구 기관과 제휴하는 형태로, 연구·관측 거점이나 해양 지구 연구선 “미라이(일본연구쇄빙선)” 등의 연구 기반을 유효하게 활용해 연구가 진행되어, 다수의 학회 발표·논문 발표로 연결되었다.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A) 일본의 지금까지의 북극 연구에 의한 축적에 입각해 국제적으로 인지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B) 일본이 제안이나 논의를 주도한 국제적인 관측 계획으로부터 많은 성과가 오르고 있는 것, 혹은 일본의 측정 기술이 기준이 되는 등, 세계의 조사·관측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 C) 이 분야들의 횡단적인 연구로서, 특히 북극의 지역 주민과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한편 조사 관측 스타일이나 환경 교재의 작성, 교재의 작성 등에 있어서, 향후의 연구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다.

✓ 연구 기반

북극지역의 연구·관측 거점의 정비

프로젝트 개시 이후, 연구·관측 거점의 수와 그 설치국을 함께 증가시켜, 현지의 나라나 국제적인

2) ArCS(북극지역연구추진 프로젝트 소개, <https://www.nipr.ac.jp/arcs2/about/> (검색일: 2022년 7월 8일).

연구 체제에의 참가를 통해 일본의 북극 연구로의 공헌을 나타냈다. 노르웨이와 그린란드에서 지속적인 관측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장기 데이터와 조사 결과를 얻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의 관측 타워를 유지하고 기상 관계와 식물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적설량과 식생의 관계 등의 북극지역 특유의 현상을 여러 가지 항목들과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취득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거점 확보가 가능해졌다.

✓ **인재육성 · 전문가 파견**

이 프로젝트로 인해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북극지역에 파견되었다. 또한 당초 연구자만 하고 있던 젊은 연구자 해외 파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17년도에는 민간인으로도 넓혀, 단기 파견의 형태로 북극 관계의 각종 국제회의에 파견해, 북극을 둘러싼 사회적인 상황의 이해와 다른 나라의 참석자과의 대화를 촉진하였다. 북극이사회(AC)를 비롯한 북극 관련 회의에 전문가 파견을 실시하였고 북극의 환경 변화의 파악과 그 대응을 폭넓게 논의해서 일본이 북극관련 활동에 공헌할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이것은 일본이 북극을 경제활동의 장과 일의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데에도 유효하다.

✓ **데이터 관리**

북극 지역 데이터 아카이브 시스템(ADS)이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담당해 프로젝트에서 얻은 각종 연구데이터의 수집·보관, 데이터 활용을 진행했다. 물리데이터로부터 문화·인류학적인 데이터까지, 다방면에 걸친 북극 연구의 데이터나 그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 집약·공개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징적인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서 북극 연구의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것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와의 제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실천했다.

이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마로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 | |
|---|
| 주제 1: 기상·해빙·파랑 예측 연구와 북극 항로 지원 정보의 통합
주제 2 : 그린란드의 빙상, 빙하, 해양, 환경 변동
주제 3 : 북극 기후에 관련된 대기 물질
주제 4 : 북극 해양 환경 관측 연구
주제 5 : 북극 기후변화 예측 연구
주제 6 : 북극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변동에 대한 응답 연구
주제 7 : 북극의 인간과 사회 :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
주제 8 : 북극지역 데이터 아카이브 시스템 |
|---|

인문사회과학 관련된 내용은 7번 주제이다.
 이 공동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테마 7 북극의 인간과 사회: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이 주제는 다른 자연과학의 연구와 연계하여 연구 성과를 소위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극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1) 북극해 항로의 이용과 자원 개발, 2)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3) 북극 거버넌스의 3개의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1)~3)을 종단하는 형태로 수많은 국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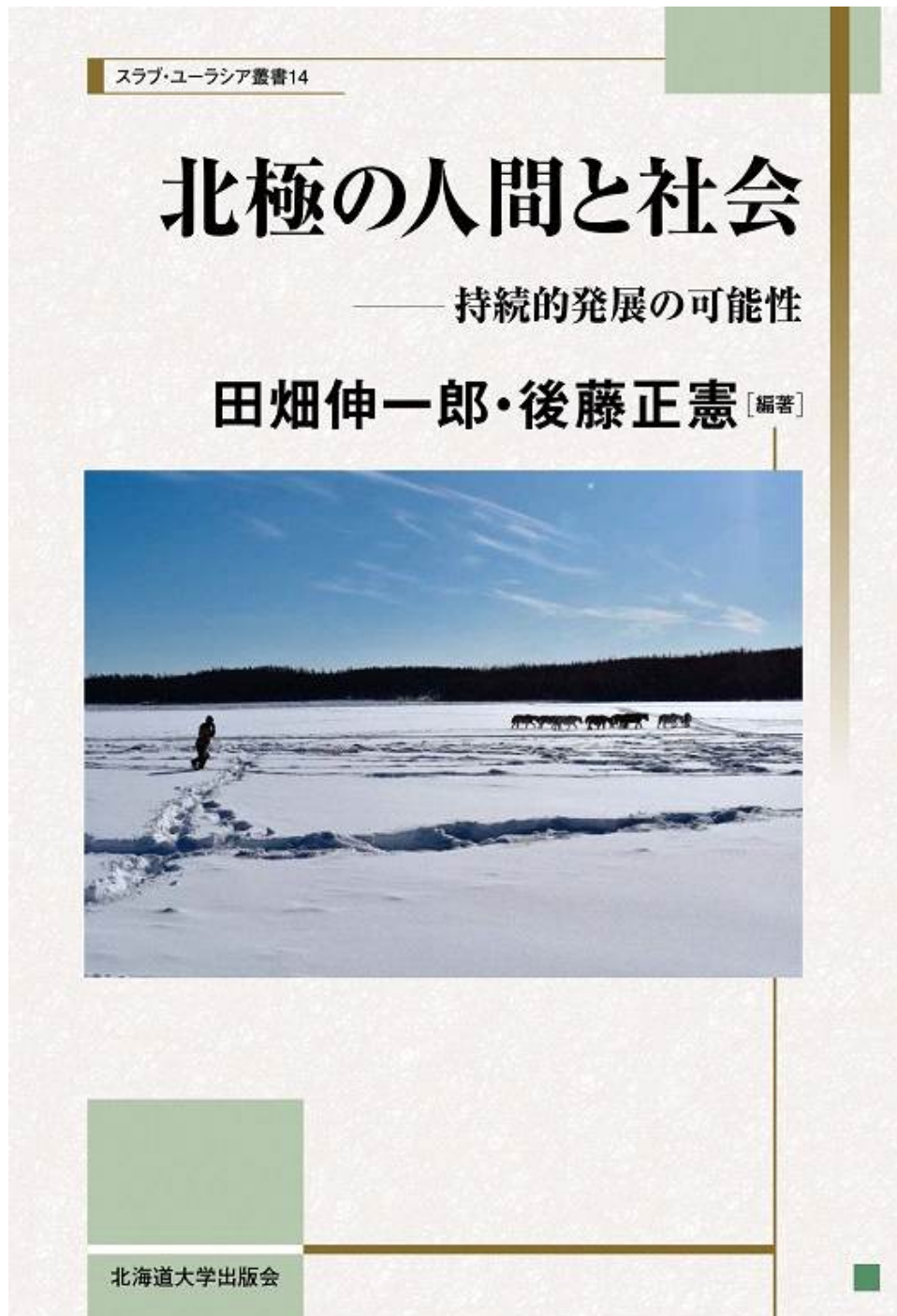
1)에서는 북극해 항로, 자원 개발, 통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화물 수송의 동향 분석, 빙해 항행의 실태 파악과 항행 가능성의 분석, 해빙 상황의 정리, 화물 수송의 비용 분석 등을 실시했다.

2)에서는 러시아의 사하 공화국, 그린란드, 알래스카를 무대로 자연 과학 연구와 연계하여 필드 조사를 실시했다. 사하에서는 영구 동토 융해의 상황과 그 지역 주민의 생활에의 영향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지질학, 환경 생태학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환경 경제학의 관점에서 산림 화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환경 교육 교재의 작성도 실시했다. 내륙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에서는, 야생동물(비버, 연어, 고래 등)과 인간의 관계의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포경의 포획 프레임 산정, 환경 모니터링의 제도화라고 하는 사건의 고찰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튀어나오는 지식과 원주민이나 지역주민이 가진 재래지식의 유기적 결합의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에서는 북극 국제법 정책 연구, 북극의 안보 환경에 관한 연구, 비 생물 자원 개발을 둘러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나아가서는 온난화에 따른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북극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타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AC의 작업부회에 관한 의견교환회와, 「북극에 관한 정부와 연구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정부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을 근거로, 정책 결정자용 보고서를 작성했다.

본 테마의 성과는 정리된 형태로서, 타바타 신이치로·고토 마사노리 편저 “북극의 인간과 사회: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 으로서 2020년 2월에 출판했다.



[그림 1] 슬라브유라시아 총서 14) 북극의 인간과 사회 -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³⁾

3) 북해도대학 슬라브연구소, http://hup.gr.jp/modules/zox/index.php?main_page=product_book_info&products_id=982 (검색일: 2022년 7월 8일).

부록) ArCS 프로젝트 주제 7 : 북극의 인간과 사회 :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 요약보고서 소개4)

연구요약보고서 『지금부터의 일본의 북극정책의 전망』

타바타 신이치로(田畑伸一郎)

서론
1장 지구환경문제
2장 북극선주민
3장 과학기술
4장 법의 지배의 보장과 국제협력의 추진
5장 북극해항로
6장 자원개발
7장 안전보장

✓ 서론

지구규모로 기후변동 온난화 속에서 북극지역에서의 온난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약 100년간의 기온은 지구전체의 평균의 약 2배 이상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북극지역에서의 온난화의 급격한 진전을 동반해서, 북극해의 해빙의 소멸도 진행되고 있고, 2012년의 하기에는 해수빙 면적이 관측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지역의 생태계나 지역사회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경향은 이후 점점 커질것이 예상된다. 또한 북극지역의 변화는 일본을 포함한 지구안전의 기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최근 명백해졌다. 그것은 먼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상의 일환이 되면서 가까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되고 있다. 한편으로 해빙의 감소는 북극해의 해로이용에 활발화시켜, 석유, 천연가스의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도 주는 것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2013년 중국이나 한국 등과 같이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가 되었고, 2015년 10월에 총합해양정책본부가“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을 발표하는 등 북극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고, 2018년 5월에 책정된 “제 3기 해양기본계획”의 안에서도 일본의 북극지역에서의 대처를 더욱 강하게 하는 방침이 도출되어, 2019년 6월에 발표된 “총합해양정책본부참여회의의견서”를 두고 이 방향으로의 제언이 되어지고 있다.

2015년에 개시된 문부과학성의 북극지역연구추진프로젝트(ArCS)를 두고는 8개의 국제공동연구추진테마의 하나로 일본의 북극지역연구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인문/사회과학계열의 테마가 조직되

4) 이 내용은 상기 소개한 책자 『북극의 인간과 사회 - 지속적 발전의 가능성』의 요약보고서를 간략하게 번역한 내용이다.

었다. 그것이 주제 7“북극의 인간과 사회: 계속적 발전의 가능성”(실시책임자: 타바타신이치로)이다. 이것은 북극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자연과학뿐만이 아닌 인문/사회과학에 의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본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본 테마에서는 ArCS 전체의 연구성과를 국내외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에 폭넓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나 북극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문/사회과학적인 지혜로운 의견을 정책결정자를 향해 발신하는 것이 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5년반의 문리융합의 연구를 밟고 서서, 이 ArCS의 연구부터 특히 정책결정자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제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에 의지할 곳으로는 상술의 “우리나라(일본)의 북극정책”이다. 그 속에는 “북극문제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으로서 지구환경문제, 북극선주민문제, 과학기술, “법의지배”의 확보와 국제협력의 추진, 북극해항로, 자원개발, 안전보장의 7개 항목이 포함되어 이후의 방향성이 나타나 있다. 본 보고서를 두고서도,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2015년 도출된 방향성이 현시점을 두고도 적절한 것인가를 검증하고, ArCS의 연구를 밟아서 어떠한 지혜로운 의견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것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제 3기 해양기본계획”이나 “총합해양정책본부참여회의의견서”등도 참고로 했다.

집필은 테마 7을 중심으로 ArCS의 실시담당자로 분담해서 행했다. 집필기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ArCS에 의한 문리융합연구의 성과가 포함하는 것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올해는 “제3회북극과학대신회합”(ASM3)가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해이다. 본보고서가 이후의 일본의 북극정책을 생각하는 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 요약보고서 각장의 요지

제 1장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에서 북극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것과 함께 북극지역의 환경문제의 악화는 지구환경에 바른 피드백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적인 의론에 있어서 북극지역의 환경문제는 제1로 그곳에 생활하는 선주민/지역주민의 생활이나 문화의 문제로서 포착하여, 환경변동에 관한 조사연구나 기술개발도 그 관점으로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환경의 모니터링이나 대책기술에서의 성과와 정치적 중립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고, 그것들을 배경으로 연구의 추진과 전문가의 파견을 계속하는 것으로 북극지역 및 지구환경문제에 공헌하고 국제적 평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 2장 북극선주민

북극지역의 국제정치에서의 선주민은 국가에 준하는 정치적 주체이다. 또한 선주민은 언어/문화/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주권이나 소수민족의 권리는 소속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큰 차이가 있는 한편, 근대화/도시화의 측면으로 공통성이 보여진다. 기후변동은 극지생태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정치경제적 동향은 이

것을 보다 복잡화하고 있다. 일본은 그 현장분석과 대응책을 문리융합 및 선주민과의 학제간 연구를 뛰어넘는 어프로치로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장 과학기술

북극지역에서는 환경변화가 급속으로 진행되어 사회로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 변화를 파악하여, 대처를 생각해 나가는 것이 과학조사의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2015년에 책정된 “우리나라(일본)의 북극정책”에서도 일본의 과학기술을 더욱 북극지역의 과제에 공헌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의 높은 평가와 그 결과나 과학적 결합의 신뢰성의 근원, 북극관측 네트워크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장기간의 북극구상의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부터, 국제공헌, 지속가능한 북극지역을 목표로 활동을 제안한다.

제4장 “법의지배”의 확보와 국제협력의 추진

“법의지배”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일본의 북극정책은 북극특유의 국제법정책의 입안/추진에 공헌할 수 있음. 특히 해양법상의 권리행사나 북극자원 개발의 대처는 북극해의 생태계보전이나 선주민족의 권리에 배려한 북극특유의 문맥으로 계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북극해양생태학 등의 과학적 지견이나 북극선주민 등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지견을 포함한 학제적인 국제법 정책연구가 기대된다. 북극과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적 지견의 국제무대에서의 반영에 머물지 않고, 북극과학협력의 저해요인을 없애고, 또한 특정분야의 과학협력을 추진하는 국제법 정책적 의론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체제 만들기가 기대된다.

제 5장 북극해항로

북극해항로의 이용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과제는 비북극권을 포함 국제적인 확대를 갖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액터를 포함한 통합적 어프로치를 통해서 북극해항로가 미치는 영향의 파악과 지속적 미래로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로의 공헌과 과제해결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6장 자원개발

자원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학 연구·조사가 요구된다. 그것과 나란히 이러한 자원개발이 자원환경이나 선주민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능한 체제를 북극권국과 같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관광이나 통신 등 이외의 비즈니스의 분야에서도 같기 때문에, 북극지역에서의 비즈니스에 관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체제 만들기가 급선무이다.

제 7장 안전보장

북극지역의 국제정세가 한층 더 긴장이 높아지거나 군비확장경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이익이라는 인식같이, 일본정부는 북극지역에서의 미중러의 동향에 충분한 주의를 쏟는 것과 동시에 국제협조주의에 기초로한 “적극적평화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북극지

역의 국제질서의 유지 및 한층 더 발전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더해서 최근의 북극지역에서는 이른바 국익에 기초한 이익의 공유나 대립뿐만이 아닌, 선주민(단체)나 그린란드 같은 하위국가적(subnational)한 주체가 안전보장영역에 영향력을 행사나가는 것 같은 국가안전보장의 상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북극정책도, 여러 가지 액터의 움직임을 상징하고, 그 영향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북극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주변을 포함한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또는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무모한 도전: 몽골을 거쳐 핀란드
접경지역 러시아 카렐리야 공화국까지...

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한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COVID-19 현상이 새로운 변이를 통해 국내외 사회를 또 다시 혼란의 정점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지난 2월말 전개되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끝을 모르고 중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핀란드 접경지역인 카렐리야 공화국의 벨로모스크(Belomorsk)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러시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직항 노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터이라 제3국을 통한 입국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한 장애 요소가 되었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지원사업의 전략적지역연구형에 선정된 사업의 1단계가 8월 말에 종료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지역연구의 핵심은 현지조사라는 강력한 믿음 하에 시작한 연구활동이 그 시발점부터 발생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친 의지와 시도가 무산된 점 등은 이번 결심을 내리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도전정신, 즉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러시아의 현지 상황과 접경지역의 분위기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과정과 그 이후의 연구영역인 북극권 상황을 미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주위에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걱정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시아행을 결정짓게 했다.

소수민족, 물류 및 북극항로 접근성 등 북극권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벨로모르스크(러시아어: Беломорск, 핀란드어: Sorokka)는 카렐리야공화국 수도인 페트로자보츠크(Petrozavodsk, 러시아어: Петрозаводск)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76km 거리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해로 이어지는 오네가 만의 항구도시로 북극해로 진출할 수 있는 화물 위주의 주요 거점지역이자 북위도 철도 건설에 있어 주요 지역 중 하나이다. 항구는 소로카(Sorokka)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으며, 원래는 북극권 소수민족 카렐리야(영어: Karelians, 러시아어: Карэлы, 핀란드어: Karjalaiset) 민족이 거주 하던 곳이었으나, 카렐리야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1만 3천명 인구 중 대다수는 러시아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벨로모르스크 위치



출처: <https://i.redd.it/0m0fnyisbli51.jpg> (검색일: 2022.08.19.)

그렇게 8월 5일부터 17일까지의 무모한 여정은 시작됐다. 터키와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를 입국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경로 중 몽골 경유를 선택했다. 이유는 비록 짧기는 하지만 사막과 스텝 경계 지역에서의 유목 생활과 북극권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순록 유목 생활의 비교를 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연구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베리아연방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백영준 선생과 함께 한 여정의 첫 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8월 5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항행이 두 차례의 지연을 통해 오후 2시 20분 개시됐으며, 이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에 있어 일정 상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비행기 지연 이유는 국제 정세 때문이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전개했으며, 그 결과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하늘 길 운항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3시간 20여 분 비행을 통해 오후 4시 40분 경(한국과 시차, -1시간)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 영상 17°C 기온의 건조하면서도 선선하여 마치 한국의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를 연상하게 하는 대기 하의 울란바토르의 공기가 잠시 기쁨을 선사했다.

[그림 2] 칭기즈칸 국제공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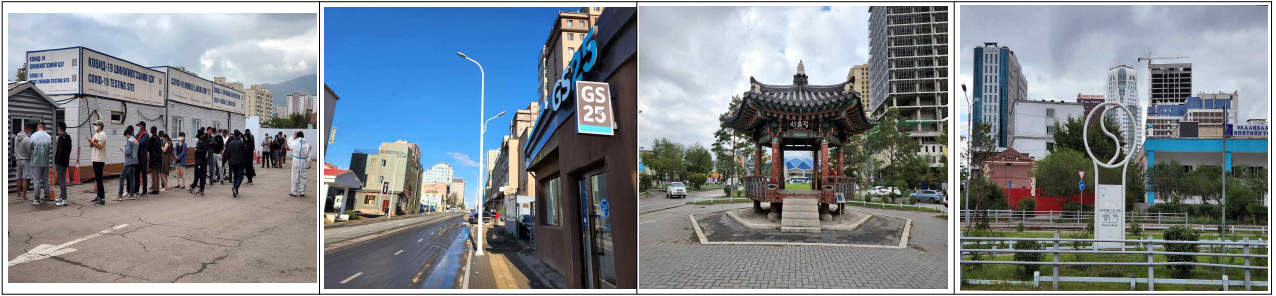
순간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항에서 서둘러 40km 거리에 위치한 울란바토르 시내로 향했다. 러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 PCR검사가 필수(결과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한정)였기에 시내 중심에 있는 병원의 오후 7시까지 검사 일정에 맞추어 도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택시가 도시에 진입하고 나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평소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택시 운전사의 말과 달리,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의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도로 사정 역시 열악한 상태로 아스팔트 곳곳의 깨짐과 함몰, 도로선 부재, 차량 및 사람들의 교통신호 무시 현상들이 교통 흐름을 더욱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평균의 배 정도인 2시간이 소요된 후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결국 도착 당일 내 PCR검사 계획은 무산됐다.

몽골에서의 PCR검사 일정을 중시한 이유는 금요일 도착한 우리가 러시아로 출발할 수 있는 가능한 빠른 일정인 토요일에 출발하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몽골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방법과 수단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번(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수시로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는 영사관을 통한 정보 취득 후 바로 포기) 운행하며, 기차의 경우 일 주일에 단 2편(토, 일 오후 3시 22분)으로 울란바토르를 출발하여 러시아의 울란우데를 거쳐 거의 만 24시간 후인 익일 오후 3시 15분(양 지역 시간대 동일)경 이르쿠츠크에 도착하는 것이 전부였다. 준비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의 러시아 현지 교통편(비행 및 철도 관련)에 관련된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교통편은 러시아 국내에 입국해서 해결해야 하기에, 여행 전 일정을 현지 사정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떠난 여정이 ‘무모한 도전’이라 불리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 지연과 몽골 수도에서의 교통 지체로 첫 번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시내의 숙소를 찾아 이렇게 러시아를 향한 첫 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출발 2일차 아침 8시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빠르게 PCR 검사를 시작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수속을 받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앞 길게 이어진 줄이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몽골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수속과정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병원관계자들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사 결

과가 빠르면 6시간(이 경우, 당일 오후 러시아 행 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소 피 말리는 기다림 속에서 시내 투어를 시작했다. 시내 곳곳에서 한국 편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로변에는 어김없이 한국관련 식당과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중 가장 특이한 점은 서울 Street이 조성되어 누각 형태의 서울정, 태극무늬 조형물들과 대형 쇼핑몰인 서울빌딩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3] 울란바토르 전경



기대는 기대일 뿐, 결과가 일찍 나오지 않은 관계로 귀국과정에서 하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간단불교대학, 나랑툼전통시장(거의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 판매, 물론 대부분은 가품) 그리고 몽골 전통 종합예술 공연 관람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저녁 일정의 몽골국립음악무용앙상블 ‘투멘 에흐’의 공연은 호메이, 전통음악, 전통무용, 퓨전음악과 탈춤 등으로 구성되어 몽골의 옛 모습과 현대 모습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림 4] 의도치 않은 몽골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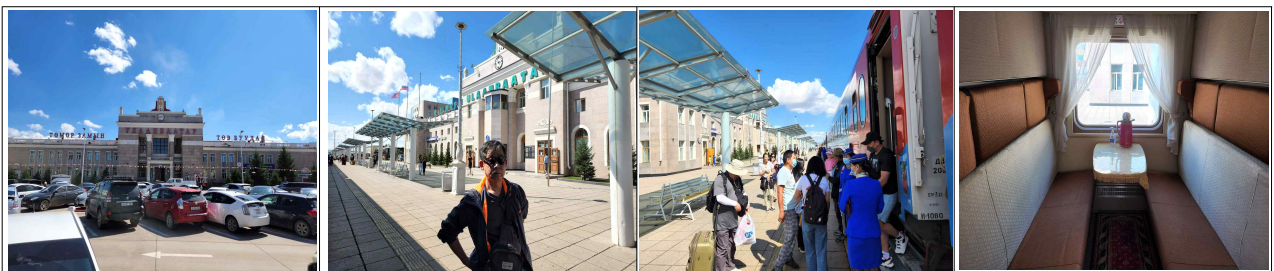
8월 7일 일요일, 일주일에 단 두 번뿐인 러시아 이룩크츠크 행 기차를 놓치게 된다면 6일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행 출장계획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됨으로 아침부터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여 PCR검사서(다행히 음성)를 수령했다. 오후 3시 22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담아 낸 주변의 공원과 규모와 관리 측면에서 다소 초라해 보이는 하지만 불교색이 매우 강한 보고드칸 겨울궁전을 방문했다.

[그림 4] 의도치 않은 몽골 관광II



몽골의 일정을 뒤로 하고 넉넉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울란바토르 기차역으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다시 한 번 난관에 봉착해 가슴 졸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일인데도 이상스러운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일반적 현상인 듯 했음)이 발생했고, 운전기사는 지름길을 찾아 왕복 이차선의 간선도로로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차선보다는 마주 오는 차선의 체증이 더욱 극심했었는데,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 10여대가 약간의 틈을 비집고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했다. 이로 인해 양방향 도로 전체가 순간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차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져 움쩍달짝도 못하는 형국이었다. 한참이 지난 후 기사는 순간적인 기지(?)와 모험심을 발휘했다. 차량을 조심스럽게 연섵석 너머 인도에 올려놓더니 보도에 걸친 상태로 그 난국을 헤쳐 나간 것이다. 그로 인해 무사히 시간 내에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보며, 몽골의 현재와 미래를 연상시켜 보기도 했다.

[그림 5] 울란바토르 기차역과 러시아 행 열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차역과 열차는 매우 낡익은 모습이였다. 러시아의 기차역 전경과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있는 열차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다만, 열차는 현재의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형 모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유학생들과 수차례의 출장기간에 탑승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과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오후 3시 22분 정각, 열차가 출발했다. 울란바토르를 떠난 열차는 몽골의 데운-하라(Дэун-Хара)역, 다르한(Дархан)역을 거쳐 러시아 접경지역인 오후 9시 50분 경 수헤-바토르(Сухэ-Батор)역에 도달하기까지 스텝지대를 거침없이 달려 나갔다. 멀리 보이는 능선과 지평선 사이에 광활하게 펼쳐진 스텝지대에는 말, 양, 소 등 유목민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가축들이 먹이 활동을 하

는 모습과 드문드문 그들의 생활공간인 게르 촌(유목민들은 게르 한 채 혹은 집단 전체를 수량 구분 없이 게르라 칭한다고 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광경을 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안위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 공간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출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인 러시아 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러한 감정을 유도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몽골의 마지막 역에서 실시한 출국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객석의 모든 창을 폐쇄하고 약 1시간 40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오후 11시 30분 열차는 다시 러시아를 향했다.

[그림 6] 기차 안에서 바라 본 몽골 전경



열차는 어둠을 뚫고 다음 날 오전 0시 14분 러시아 첫 번째 역인 나우쉬키(Наушки)에 도착했다. 입국을 위한 절차가 다시 시작했다. 몽골 출국 때에 비해 다소 엄격하고 진지한 검사가 이루어져 피검사자인 우리 역시 적지 않은 긴장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PCR 검사 결과, 입국서류와 여권 검사에 이어 수화물 및 차량의 상하부에 대한 검색이 1시간 50여분 실시되는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경 통과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입국 검사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드디어 러시아 입국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을 출발해 러시아 입국까지 4일(만 3일)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무사입국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다소 흥분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새벽 2시 경 열차는 어둠을 뚫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으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창밖은 검은 물감으로 가득 채워진 채 바랏티(Бараты)역과 간주리노(Ганзурино)역을 거쳐 울란-우데(Улан-Уде)에 접근할 때 즈음되어서야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짙게 깔려 있는 새벽안개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 시베리아 남쪽 지역의 스텝지대가 슬그머니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림 7] 기차 안에서 본 러시아 시베리아 전경



울란우데 역을 거쳐 열차는 자작나무와 침엽수로 무성한 시베리아 중심을 향해 지침 없이 달려 나가다 마침내 시베리아 대지를 적셔주는 그 웅장한 바이칼 호수와 맞이했다. 바이칼 호수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이곳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잘 알려져 있기에 생략... 그렇게 기차는 슬로단카 (Слодянка)-1역(같은 명칭의 역이 2개 존재)을 포함한 러시아 영토 내의 총 5개 역을 거쳐 오후 3시 15분 최종 종착역인 이르쿠츠크 역에 거의 정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두 번째의 기나긴 여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림 8] 기차 안에서 본 시베리아 그리고 종착역



출발 4일 째, 러시아 입성 첫 날은 시베리아의 파리라 명칭되는 이르쿠츠크에서 보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와의 사태로 러시아 현지의 정황이 매우 궁금했던 지라 숙소를 찾으며 거리의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워낙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라 그런지 이전에 자주 방문하며 경험했던 분위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를 거주하며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점검하고 교통편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로 예니세이강의 지류이자 바이칼호수와 연결된 안가라 강변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호텔을 선택했다. 호텔의 정경과 숙소 내부는 이전에 비해 다소 정비 정돈되었기는 하지만 워낙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서비스와 영업 의지 및 자세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 러시아인들의 시장 경제 적응력이 이전에 비해 향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새로운 곳이 아닌 다소 익숙한 숙소를 선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동 계획이 확정되면 주변을 돌아 볼 수 있는 적당한 위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 일정 결정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 결국 익일 오전 8시 출발하는 비행편으로 모스크바로 이동하여 목적지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경로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르쿠츠크를 살펴보기로 한 계획은 귀국 노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몇 도시에서 경험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상태였다. 물론, 이용했던 몇몇의 택시 기사들이 현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전쟁 무용론과 피해에 대한 일반론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젊은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입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불평이나 비난 수위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일정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 입구에서 마주쳤던 현 사태로 인해 고난에 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이르쿠츠크 시청 앞 광장에도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이나 그곳이나 전시물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됐다. 왜냐하면, 상

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의 경우 국제 제재로 인해 축소된 외국 여행객을 국내 여행객들의 ‘보복 여행(?)’으로 대체된 것 같이 인파로 가득 채워졌으나 그 입구의 도로 중앙에 위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게시물에는 거의 눈길마저 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 아니 오히려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르쿠츠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전시물은 멀리 이국땅에서 온 이방인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맨 앞에 놓여 진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 어린이들의 외침을 담아 낸 게시판의 문구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가슴과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항상 엄마가 있게 해 주세요, 항상 나도 존재할 수 있게 해 주세요(...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 그리고 이어지는 피해 어린이들의 모습.....

왜 러시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러시아에서 전시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선전 선동의 일환일 것이라는 스스로의 이해와 판단을 해 보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태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구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하튼 현지인들은 철저히 무관심해 보였다. 이는 여행 일정 내내 곳곳에서 동일하게 느낀 현지 인상이기도 하다. 반대로 현재의 사태에 대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표현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가라 강의 유람선 선두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에 러시아 군을 상징하는 ‘Z(이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 그 중 러시아어 ‘승리를 위하여: за победу’의 문구에 나오는 문자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함)’가 그려져 있었으며, 이 상징적 표현은 여러 건축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이르쿠츠크 도시 분위기



한국을 떠난 지 5일이 경과한 아침 일찍 이르쿠츠크 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약 6시간 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모스크바에서의 잠간 동안의 휴식을 취한 후 당일 오후 8시 10분 또 다른 목적지인 카렐리야 공화국의 수도 페트로자보드츠크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레닌그라드스키 역으로 향했다. 열차는 정시에 출발했고, 그 다음 날인 8월 9일 오전 10시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벨로모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최종 거점지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 이방인을 맞이한 페트로자보드츠크 도시 전경은 다소 생경스러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연장선 상에서 NATO가입 문제로 러시아와 극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핀란드와의 접경지대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어색할 정도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거리의 주민들 모습에서 그 어떠한 긴장감이나 긴박한 감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현지인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으며, 상점이나 휴식 공간인 해변 공원 등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도착과 동시에 최종목적지로 향하는 교통편을 확인해 보았다. 러시아 내에서 줄곧 이 부분에 대한 검색과 질문의 답은 페트로자보츠크 현지에 가야 확실한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었다.

[그림 10] 페트로자보츠크 도시 분위기



확인 결과는 암울함과 절망 그 자체였다. 열차편은 3일에 한번 그리고 시내에서 마이크로버스로의 이동은 하루 한 번으로 오후 1시 경 기차역 인근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두 경우 중 버스편이 일정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어 확인한 결과 벨로모르스크에서도 하루에 한 번 페트로자보츠크 행이 있기는 하나, 이 모든 버스 일정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주어진 전체 출장 일정은 13일, 그 중 페트로자보츠크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5일이었으며 귀국 시 소요되는 시간 역시 5일 정도, 남겨진 시간은 3일 그러나 당일 벨로모르스크로 출발하는 버스는 이미 놓친 상태로 다음 날 출발하여 다시 페트로자보츠크로 귀환하여 귀국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힘들게 이곳에 도달하여 목적지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결국 최종 목적지로의 여정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무모한 도전’의 끝이 어떠한 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정 이 여정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었을 가하는 진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떠오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 상태에서 러시아 입국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 하에서, 그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일종의 용감한 도전정신(?), 국제제재로 인한 러시아인들의 현지 생활 모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지와 인식을 해 보고자 하는 객관적 판단(?)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이 사태에 대한 러시아 현지인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 파악 그리고 북극권 연구에 있어 소수민족 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자하는 연구 욕심(?) 등이 이 여정의 실행을 결정지었다. 솔직히 언급하자면, 상기한 여러 요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힘들고 다소 무리한 여정이기는 했지만, 아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직간접인 답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큰 위로와 만족감을 느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역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여정에 대한 개별적 소감을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 역시 '무모한 도전'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만...

[공지 사항]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간하는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연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하는 **2021 KCI IF(한국학술지색인 영향력지수) 지역학 분야 54개 학술지 중에서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 2단계(2022-2025년)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욕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